

전남 3대 해수욕장...가마미 옛 영광 다시한번

숲속의 전남 <4>

영광 가마미해수욕장 해양경관숲
(가마미개발위원회)

소나무숲 복원·카라반·풀장 조성

“서민들 저렴하게 즐길 휴양지로”

과거 가마미는 호남의 3대 해수욕장으로 그 명성이 높았다. 1925년 일제강점기 개장한 가마미해수욕장은 길이 1km에 폭 200m의 백사장이 펼쳐져 있다. 이 오래된 휴양지의 가장 큰 특징은 반달 모양의 해변과 그 앞에 펼쳐진 조그마한 섬들의 향연이다.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없었던 뛰어난 경치가 깨끗한 바다와 어울리면서 가마미에는 해수욕 문화가 낫설었던 일제강점기부터 여름이면 사람들로 북적였다. 40~50년 전에는 광주는 물론 호남지역 주요 도시에서 가마미로 향하는 직통버스가 있었을 정도다. 1968년에는 관광특구로 지정됐었다.

가마미(駕馬尾) 명칭은 해수욕장 뒤편 금정산의 산세에서 비롯됐다. 마치 말에 멘 말의 꼬리처럼 생겼다는 의미다. 언제부터 그렇게 불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개장 시점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천연기념물 제361호인 노랑부리백로와 꿩이갈매기가 서식하며, 해수욕장 옆에 있는 2개의 큰 방파제와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 해수욕을 마친 이들이 찾는 곳은 당연히 그늘이다. 가마미는 200여 그루의 울창한 소나무숲이 또한 명물이었다. 어른 한 명이 두 팔 벌려도 안을 수 없을 만큼의 굵기에 하늘을 모두 가릴만큼 건장한 가지들은 마치 가마미의 전성기를 의미하듯 서 있었다.

가마미의 쇠락이 엿보인 것은 1980년대 인근에 한빛원전이 자리하면서부터다. 온배수에 대한 불안감, 호남지역 곳곳에 해수욕장이 개장되고 교통편도 나아지면서 가마미를 찾는 이들이 서서히 줄어든 것이다. 그와 동시에 하늘을 덮었던 아름드리 해송도 하나둘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오랜기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다보니 답압(踏壓)피해가 발생하고, 거기에 술걸질까지벌려 피해, 기묘 피해 등이 겹치면서 수십그루가 고사한 것이다.

가마미의 전성기를 다시 열고자 했던 가마미개발위원회는 소나무숲의 복원이 무엇보다 급선무라는 판단에 전남도의 숲 속의 전남 가꾸기 사업 주민참여 공모에 참여했다. 울창한 소나무숲이야말로 가마미의 상징이자, 새로운 전성기의 도래를 알리는 서막이기 때문이다.

가마미개발위원회 이승현(48) 위원장은 한창 공사 진행중인 가마미해수욕장을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캠핑족을 위한 카라반, 가족 단위 휴양객을 위한 풀장 등 70억원을 투입하는 대공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공사를 마치고 첫 해 여름을 보낸 뒤 다시 ‘수요자’를 고려한 시설과 서비스를 고민하겠다는 것이 이 위원장이 각오다. 인천 등지에서 점포를 운영하다가 20대 후반에 귀향한 그는 찾는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마미를 재설계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는 “가마미는 서민들의 휴양지로, 가격도 저렴하게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어른 손목 크기 정도의 소나무 200그루가 가마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징조라는 것이다. 소나무가 그 굵기를 더하고, 가지를 더 풍성하게 할 때까지 가마미의 전성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염원에 담겼다.

해양경관숲 정보

주소 :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로 357-15

면적 : 7636㎡

내역 : 해송 200그루

목적 : 피서지 경관 조성 등



한 때 전남 3대 해수욕장으로 명성을 날렸던 가마미 해수욕장의 전성시대가 다시 오기를 기원하며 주민들이 심은 소나무 200그루.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수 푸르른 둔덕 교통숲(여주시 조경협회)

맛있는 교통섬에 야자나무·초화류 등 심어

“나무 쭉쭉 자라듯 여수의 번영도 이어지길”



순천에서 여수공항공과 국가 산업단지를 거쳐 여주시청 등이 있는 구도심을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할 곳이 ‘제11호 광장’이다. 여수 앞바다, 여수케이블카, 금오도를 접하기 전 화학산업의 메카라는 너무도 다

교통숲 정보

주소 : 여주시 둔덕동 교통광장 11호

면적 : 1332㎡

내역 : 종려나무 20그루, 관목·초화류 6000본

목적 : 교통섬 경관 개선 등

른 여수의 단면을 지켜본 외국인들에게 관광도시 여수를 알리기 위해 이 광장에 숲을 조성하자고 한 곳은 여주시조경협회. 4~6차선의 대로가 한 데 겹치는 제11호 광장은 산단보다도 삭막하게 보였다는 것이 그 이유다. 9명의 회원들은 고민 끝에 남도의 관광도시 여수를 상징하는 나무로, 제주에서 관상용으로 심는 종려나무를 선택했다.

야자나무과의 상록교목인 종려나무는 난대수종이면서 운전자의 시선을 막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외국인들에게 이국적인 정서를 안겨주는 숲이었으면 하는 회원들의 바람도 담겼다. 여수 구도

심으로 진입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3곳의 맛있는 교통섬에 종려나무를 심고 빈 공간에는 관목과 초화류 6000그루를 심었다. 원목비에 식재비까지 그루당 100만원을 호가해 예산 지원으로 마련한 20그루 외에 회원들이 각출해 13그루를 추가했다.

김영남(52·사진) 여주시조경협회 회장은 “여수 관문인데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생각에 회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숲을 조성하게 됐다”며 “종려나무가 5~8m까지 자라려면 30년 이상 소요돼 여수시의 번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기를 희망하는 마음도 담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



2016년 숲 속의 전남 가꾸기 사업 가운데 6번째로 조성된 여수 둔덕교통숲.

은 또 “둔덕 교통섬 이외에도 여수시내에 방치돼 있거나 죽어 있는 공간에 새로운 생명을 주는 일들을 꾸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여주시조경협회는 풀베기 등 매달 한 차례 이상 교통숲을 찾아 관리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